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정 명 속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대학생, 성인,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삶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삶의 각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1)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각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연령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2)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삶에 대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3)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는 어떤 관계이며 영역별 만족도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노인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영역별 만족도의 경우에도 물질, 사회, 생산 영역의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노인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양상을 보였으나, 신체영역 만족도는 중학생과 대학생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만족하고 있는 편이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경제수준이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모두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과 다른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간에 상호작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었다. 사회·생산영역 만족도에서는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전반적·신체영역 만족도에서는 교육수준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그리고 물질·사회영역 만족도에서는 가족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끝으로, 모든 연령집단에서 물질영역과 생산영역의 만족도가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영역과 신체영역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삶의 질, 전반적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노인

심리학자들은 지금까지 인간의 불행이나 장애 등 부정적인 측면의 심리적 기제를 다루는 데 전념해왔으며,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방치되어 왔다(한

성열, 1995; Diener, 1984; Maslow, 1970).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최근 들어 우울, 고독, 자살 등 인간심리의 어둡고 불행한 측면을 다루는 연구보다는 사랑과 행복, 정신적 만족과

이 연구는 2005년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다.

교신저자 : 정명속, E-mail: mchung@kkot.ac.kr

복지에 관한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기 시작하였다(Cowen, 1991; Sternberg, 1986). 이와 같은 배경에서 최근 30년 가까이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이 심리학에서 주요 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인간 각자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과 관련된 변인들을 밝혀내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건강한 정신과 적응의 기준을 정신병리의 부재에서 찾던 종래의 관점과는 달리, 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의 정도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성인과 노인의 다섯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본 연구는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상당수는 한두 연령층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예, 광금주, 1995; 김의철, 박영신, 광금주, 1998; 유희정, 1987)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삶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각각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한 가지만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영역별로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1) 각 영역별 만족도가 연령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2) 삶의 각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전체적인 만족도에는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3) 각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삶의 어느 영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개인이 일상의 삶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학생들은 학업 및 또래/이성관계, 성인들은 가정경제를 꾸려나가기야 하는 책임, 노인은 건강과 경제력 상실 등이 다른 무엇보다 중대한 관심사일 수 있다.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이렇듯 관심의 초점이 되는 영역들에서 각각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 결국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연령에서나 만족감이 특히 낮은 영역과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이 있을 것인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영역에서 만족감이 낮을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 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는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연령에 따라 만족감이 낮은 영역과 높은 영역의 프로파일은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만족감이 떨어지는 영역이 유난히 더 많다거나

표 1. 우리나라 청소년, 성인,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선행연구

연구	대상	척도	만족도 점수 [†]
조명한 등(1994)	청소년(13-24세)	Shaver & Freedman(1976)	3.04
곽금주(1995)	청소년(남중생)	Huebner(1994)	2.97~3.75
이인혜(1997)	대학생	MUNSH	2.50
김의철 등(2000)	청소년(초중고대)	자체제작	청소년 3.19
	성인(M=44.59세)		성인 3.11
	노인(M=65.37세)		노인 3.32
			(청소년=성인<노인)
조명한·김정오(1993)	성인		SWLS 3.03
김혜숙 등(1997)	성인(20대 ~ 60대)	SWLS, 기분평정척도	긍정정서 2.58
			부정정서 2.02
			SWLS 2.64
김영진 등(1998)	대학생 포함 성인	SWLS, 기분평정척도	긍정정서 2.50
			부정정서 3.55
김경신·김정란(2001)	중년여성(40-59세)	Schallock & Keith(1993)	3.46
임효영·김경신(2001)	중년기혼여성(40-59세)	홍은실(1996)	3.27
신경림·양진향(2003)	농촌중년여성(40-64세)	Stoke, Dunbar & Beaumont (1992)	40-44세 3.17
			45-49세 3.34
			50-54세 3.37
			55-59세 3.11
			60세 이상 2.92
			(50-54세 > 60이상)
유성호(1997)	노인(>60세)	LSIA	2.26
박은숙 등(1998)	노인(>60세)	노유자(1988)	3.44
김남진(1999)	노인(>60세)	자체제작	3.15
성기월(1999)	시설노인, 일반노인 (>65세)	MUNSH	시설노인 4.64
			일반노인 3.98
이인정(1999)	노인(>60세)	단일문항	노년전기 2.27
			노년후기 2.36
			(노년전기=후기)
최정신(1999)	노인(>65세)	Campbell(1976)	3.89
권중돈·조주연(2000)	노인(>65세)	LSIZ	3.33
김기태·박봉길(2000)	독거노인(>65세)	Salamon & Conte(1984)	2.49
김정석·김익기(2000)	노인(>60세)	자체제작	3.07
윤경아 등(2000)	장애노인		3.35~3.95
정혜정 등(2000)	독거여성노인(>65세)	MUNSH	2.48-2.78
이익섭·윤경아(2001)	장애노인(>60세)	LSIA	1.90
박광희·한혜정(2002)	농촌노인(>65세)	LSIA	2.27
박장근 등(2002)	복지관거주 노인(>60세)	자체제작	2.48~3.12
전귀연·임주영(2002)	노인(>65세)	Campbell(1976), Diener 등(1985)	3.25

김미옥(2003)	장애노인(>65세)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81~3.50
고보선(2003)	노인(>65세)	Andrews & Withey(1976)	3.09
이형석 등(2003)	노인(>55세)	노인삶의질척도(자체제작)	남 3.08 여 2.94
이형실(2003)	농촌노인(>60세)	박경란 등(1995)	60대 3.23 70이상 3.12 (60대=70이상)
고보선(2004)	노인(>65세)	Andrews & Withey(1976)	2.94~3.17
김영범·박준식(2004)	노인(>65세)	단일문항	2.85
임주영·전귀연(2004)	노인(>65세)	자체제작	유배우자노인 3.38 무배우자노인 2.98

주. 대부분의 연구는 원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 척도의 일부 문항들만을 사용하거나 또는 여러 척도에서 적절한 문항을 선별·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음.

† 각 연구의 만족도 점수는 연구들 상호간에 결과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부 5점 척도로 환산한 것임.

자신의 삶에 특히 중요한 영역에서 선별적으로 만족감이 더 낮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논리적 근거는 없으므로 연령집단 간에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표 1),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연령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자료에 근거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 연구들은 각기 다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만족감을 측정하였을 뿐 아니라 만족감을 측정하는 척도도 연구마다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거나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성별, 주거환경, 장애여부 등 삶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여러 요인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 연구의 자료만으로는 연령차이와 관련해 어떤 의미있는 결론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령집단 간에 영역별 만족도의 프로파일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령집단별로 영역별 만족도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또 연령 외에도 성별,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삶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체계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는 이 변인들의 영향력이 연구마다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예, 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1976; Diener et al., 1984). Diener 등(1984)은 선행관련 연구들을 개관한 후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삶에 대한 만족감 변량의 15%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예로 Andrews와 Withey(1976)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나 노인을 포

표 2. 연령집단별 성별, 경제수준, 가족유형, 학교성적, 교육수준에 따른 조사대상의 분포(단위: 명)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노인	합계
성별	남	74	48	111	214	72	519
	여	71	87	73	251	66	548
경제수준	상	44	28	35	90	31	228
	중	88	86	110	284	69	637
	하	13	21	39	91	38	202
가족유형	대가족	25	15	27	61	50	178
	핵가족	120	120	157	403	88	888
	무응답	-	-	-	1	-	1
성적	수	30	18	34	-	-	82
	우	40	65	113	-	-	218
	미	53	38	30	-	-	121
	양/가	20	14	5	-	-	39
	무응답	2	-	2	-	-	4
교육수준	초졸	-	-	-	17	49	66
	중졸	-	-	-	47	17	64
	고졸	-	-	-	239	24	263
	대졸 이상	-	-	-	162	19	181
	무응답	-	-	-	-	29	29
	합계	145	135	184	465	138	1067

주. 전체 사례를 다 포함하는 다른 변인들과는 달리, 성적은 중고대학생의 자료만 수집했고 교육수준은 성인과 노인의 자료만 수집했으므로, 이 두 변인의 측정에 들어간 사례의 수를 다 합쳤을 때 전체 사례의 수가 됨.

함한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에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영역별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가령 경제수준은 전반적 만족도에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물질영역의 만족도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뿐 아니라, 영역별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도 살펴보려고 하였다.

방 법

대상

표 2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 분석대상은 총 1,067명으로서, 중학생 145명(남 74명, 여 71명), 고등학생 135명(남 48명, 여 87명), 대학생 184명(남 111명, 여 73명), 성인 465명(남 214, 여 251), 그리고 노인 138명(남 72, 여 66)이었다. 성인은 중고대학생의 학부모로서 자녀를 통해 질문지를 실시하였다(회수율 51%).¹⁾ 노인은 노인복

1) 본 연구의 자료는 주로 변량분석에 의해 분석하였는데, 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만족도 점수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독립적 표집이라는 변량분석의 가정이 훼손되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점수 간 상관관계를 구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경우 상관의 크기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의 점수가 상당히 독립적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를 변량분석에 의해 분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회관의 여러 취미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노인정에 나와 소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집단별 평균연령은 중학생 13.9세, 고등학생 16.7세, 대학생 23.0세, 성인 43.9세, 그리고 노인 72.5세이었다.

도구

질문지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연령, 성별, 교육정도, 경제수준, 학업성적 등 필요한 배경정보를 구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경제수준은 상, 중상, 중중, 중하, 하의 5개 수준 중에서 선택하게 했는데, 상이나 하를 선택한 사람은 전체의 5% 정도(상 2%, 하 3%)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중상, 중중, 중하를 선택함에 따라 상과 하를 각각 중상, 중하와 합쳐서 상, 중, 하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중고·대학생용, 성인용, 노인용 질문지를 각기 따로 제작하였다. 각 질문지의 측정변인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였으나, 영역별 만족도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의 어휘를 조사대상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였다(예,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은 학생이라면 학교공부, 성인과 노인의 경우는 집안일이나 직장일, 또는 취미생활 등).

1)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이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에 의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발된 이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재는 도구로

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의 하나로서, 신뢰도나 타당도 같은 중요한 심리학적 특성에서도 매우 만족할 만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들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많이 제작되었으나, 발달연구와 관련해서 볼 때 대부분의 척도들은 특정 연령층, 또는 한두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WLS는 청소년기 이후로 어떤 연령층에나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Diener, 1984) 여러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차를 살펴보는 본 연구에 특히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의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5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완석, 김영진, 1997; Diener et al.,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한 값을 SWLS 점수로 삼았다.

2) 삶의 영역별 만족도

본 연구는 또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영역별 만족도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로 해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정된 문항들에 대한 반응을 요인 분석하여 신체영역(2문항), 물질영역(4문항), 사회영역(3문항), 그리고 생산영역(4문항) 만족도의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영역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문항의 예로는 “나는 지금의 내 건강상태에 만족한다”(신체영역), “나는 용돈이 넉넉한 편이다”(물질영역), “나는 부모님/배우자/자녀/손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사회영역), “나는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집안일, 직장일, 취미생활 등)에 만족한다”

표 3. 측정변인의 신뢰도

변 인	문항수	α
전반적 만족도	5	.8225
신체영역 만족도	2	.5812
물질영역 만족도	4	.6630
사회영역 만족도	3	.6265
생산영역 만족도	4	.6960

(생산영역) 등이 있다. 각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을 평균한 값을 그 영역의 만족도 점수로 삼았다.

각 변인의 Cronbach α 신뢰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신뢰도는 문항 수가 들뿐인 신체영역 만족도의 경우 .58 정도로 낮은 편이었으나 나머지는 .62에서 .82 사이에 있어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실시방법

조사는 2004년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실시되었다. 중·고·대학생의 경우, 수업담당 교사나 교수가 질문지 내용을 미리 숙지한 다음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연구보조원이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조하였다. 질문지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학생들은 또 부모가 작성한 성인용 질문지를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였다. 학생들의 성실한 응답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 들어간 파일을 답례로 제공하였다.

노인들은 대부분 노령으로 인해 질문지를 직접 읽고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훈련된 연구보조원들이 복지기관이나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문항을 읽어주고 답지에 그들의 응답을 대신 기록하는 개별면접 방식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개별면접은 노인정이나 복지기관의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되었으며, 노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약간의 다과를 제공하였다.

결 과

연령, 성별, 경제수준, 가정유형, 성적, 교육수준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표 4에 연령집단과 성별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 만족도는 전체평균이 5점 척도의 중간점수인 3점에 조금 못 미쳤다. 그러나 영역별 만족도 점수는 전부 전체평균이 3점을 넘어섰으며, 전반적 만족도 점수에 비해서도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geq 16.38$, $p < .001$. 영역별 만족도 상호간에도 전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t \geq 2.06$, 사회영역(3.91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물질영역(3.36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4에는 연령(5) x 성별(2) 다변량분석의 결과도 제시되어 있다.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연령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차이는 없었고 성별과 연령간의 상호작용도 의미가 없었다. 사후분석(Duncan test) 결과를 보면, 전반적 만족도 점수는 노인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 성인, 대학생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고등학생이

2) 이후 모든 사후검증은 Duncan test에 의한 것임.

표 4. 연령집단과 성별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평균(표준편차)과 다변량분석 결과

		전반적	신체	물질	사회	생산
		M(SD)	M(SD)	M(SD)	M(SD)	M(SD)
중학생	남	3.30 (.89)	3.57 (.91)	3.55 (.85)	4.13 (.77)	3.37 (.79)
	여	2.91 (.90)	3.81 (.87)	3.38 (.93)	4.02 (.77)	3.07 (.84)
고등학생	남	2.69 (.94)	3.48 (.89)	3.24 (.78)	3.72 (.79)	2.90 (.62)
	여	2.67 (.82)	3.31 (.96)	3.14 (.88)	3.68 (.89)	2.91 (.92)
대학생	남	2.85 (.78)	3.67 (.87)	3.70 (.73)	3.81 (.74)	3.61 (.68)
	여	2.87 (.69)	3.44 (1.05)	3.47 (.78)	3.80 (.78)	3.70 (.64)
성인	남	2.96 (.86)	3.37 (.84)	3.19 (.76)	3.71 (.74)	3.63 (.73)
	여	2.95 (.87)	3.34 (.88)	3.10 (.78)	3.88 (.69)	3.62 (.69)
노인	남	3.19 (.88)	3.65 (1.17)	3.76 (.82)	4.20 (.73)	3.83 (.79)
	여	3.31 (1.04)	3.20 (1.44)	4.03 (.86)	4.69 (.49)	4.11 (.72)
계	남	2.99 (.87)	3.51 (.92)	3.44 (.81)	3.86 (.77)	3.55 (.76)
	여	2.93 (.88)	3.39 (1.01)	3.30 (.87)	3.95 (.78)	3.50 (.83)
	중	3.13 (.91)cd	3.69 (.90)b	3.46 (.90)b	4.07 (.77)b	3.23 (.83)b
	고	2.68 (.86)a	3.37 (.94)a	3.18 (.84)a	3.69 (.85)a	2.90 (.82)a
	대	2.84 (.74)ab	3.54 (.94)ab	3.59 (.76)b	3.81 (.76)a	3.63 (.67)c
	성인	2.96 (.86)bc	3.37 (.85)a	3.16 (.77)a	3.80 (.72)a	3.63 (.71)c
	노인	3.24 (.96)d	3.47 (1.33)a	3.91 (.84)c	4.46 (.67)c	3.95 (.77)d
	전체	2.96 (.88)	3.46 (.96)	3.36 (.84)	3.91 (.78)	3.52 (.80)
F(4, 1011)	연령집단	8.71***	3.44**	26.57***	26.19***	41.28***
F(1, 1011)	성별	.74	2.62	1.53	3.90*	.15
F(4, 1011)	상호작용	1.55	2.18†	2.12†	4.40**	2.72*

주. 이후의 모든 표에서 * $p < .05$, ** $p < .01$, *** $p < .001$ 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 $.05 < p < .10$

사후검정은 전부 Duncan test에 의한 것으로, 첨자가 다르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가장 낮았다.

영역별 만족도 역시 4개 영역 모두에서 연령간 차이가 있었는데, 신체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의 만족도는 모두 전반적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점수가 가장 높고

고등학생의 점수가 가장 낮은 패턴을 보였다.

신체영역 만족도는 중학생과 대학생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영역별 만족도 중에서는 사회영역 만족도만이 성별효과가 있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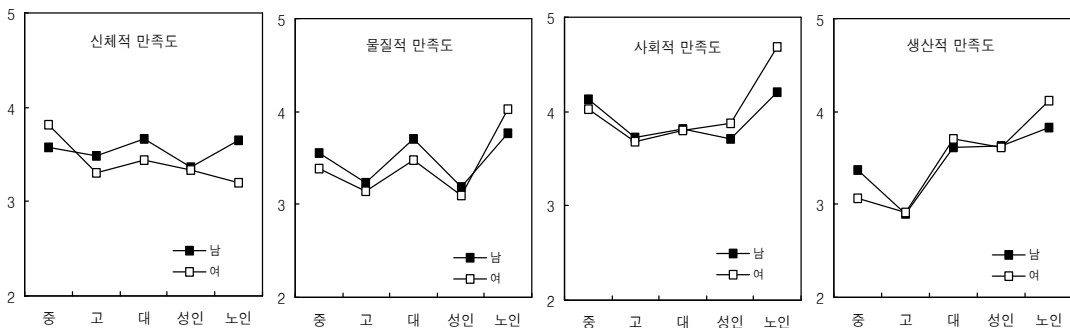


그림 1. 4개 영역만족도에서 성별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사회영역 만족도가 더 높았다. 나머지 세 영역의 만족도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사회영역과 생산영역의 만족도는 성별과 연령간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사회영역 만족도의 경우 대학교 때까지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다가 성인이 되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만족도가 더 높아졌는데, $t(456)=2.499, p<.05$, 이 차이는 노년기에 더욱 크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t(136)=4.576, p<.001$. 생산만족도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는 남자가 더 높지만, $t(143)=2.227, p<.05$,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기에는 남녀간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가 노년기에 이르면서 여자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t(130)=2.184, p<.05$.

물질만족도와 신체만족도의 경우에는 연령

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유의수준에 근접하였다. 물질만족도는 사회만족도나 생산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성인기까지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이거나 여자가 좀 낮은 편이었으나 노년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신체만족도는 나이가 들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5에는 연령집단과 경제수준에 따른 만족도 점수를 제시하였다.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모두에서 연령집단과 경제수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은 의미가 없었다. 사후분석 결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만족도와 4개 영역별 만족도 점수가 모두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경제수준별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평균점수(표준편차) 및 연령과 경제수준을 변인으로 한 다변량분석의 결과

		전반적 <i>M(SD)</i>	신체 <i>M(SD)</i>	물질 <i>M(SD)</i>	사회 <i>M(SD)</i>	생산 <i>M(SD)</i>
중학생	상	3.33 (1.07)	3.65 (.94)	3.79 (.87)	4.18 (.79)	3.45 (.93)
	중	3.01 (.84)	3.75 (.87)	3.40 (.86)	4.01 (.78)	3.11 (.78)
	하	3.03 (.76)	3.42 (.95)	2.79 (.70)	4.13 (.60)	3.17 (.66)
고등학생	상	2.99 (.99)	3.57 (.86)	3.51 (.77)	3.99 (.82)	3.14 (.86)
	중	2.69 (.80)	3.40 (.92)	3.14 (.82)	3.63 (.88)	2.90 (.79)
	하	2.19 (.72)	3.00 (1.04)	2.87 (.90)	3.54 (.69)	2.61 (.85)
대학생	상	3.46 (.67)	3.73 (1.00)	3.98 (.75)	3.98 (.77)	3.98 (.65)
	중	2.75 (.71)	3.59 (.93)	3.58 (.75)	3.84 (.77)	3.57 (.64)
	하	2.62 (.62)	3.42 (.96)	3.34 (.65)	3.58 (.67)	3.57 (.69)
성인	상	3.41 (.81)	3.52 (.79)	3.61 (.68)	3.88 (.70)	3.87 (.70)
	중	2.95 (.81)	3.38 (.85)	3.15 (.71)	3.83 (.74)	3.61 (.69)
	하	2.50 (.83)	3.10 (.95)	2.68 (.77)	3.63 (.62)	3.43 (.70)
노인	상	3.71 (.97)	3.63 (1.30)	4.11 (.73)	4.63 (.52)	4.09 (.74)
	중	3.39 (.89)	3.49 (1.28)	4.12 (.71)	4.46 (.68)	4.08 (.69)
	하	2.65 (.76)	3.19 (1.40)	3.28 (.88)	4.23 (.72)	3.66 (.84)
계	상	3.39 (.90)a	3.60 (.94)a	3.75 (.77)a	4.07 (.76)a	3.74 (.82)a
	중	2.93 (.83)b	3.48 (.94)a	3.36 (.81)b	3.90 (.80)b	3.48 (.78)b
	하	2.55 (.78)c	3.19 (1.06)b	2.95 (.82)c	3.76 (.70)c	3.40 (.79)b
F(4, 1006)	연령집단	8.46***	2.25*	24.54***	21.98***	32.57***
F(2, 1006)	경제수준	32.34***	4.95**	42.81***	7.15**	11.97***
F(8, 1006)	상호작용	1.62	.28	1.68	.56	.83

표 6. 연령집단과 가족유형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평균점수(표준편차) 및 다변량분석 결과

		전반적	신체	물질	사회	생산
		<i>M (SD)</i>	<i>M (SD)</i>	<i>M (SD)</i>	<i>M (SD)</i>	<i>M (SD)</i>
중학생	대가족	3.30 (.99)	3.58 (.79)	3.60 (.57)	3.96 (.84)	3.29 (.55)
	핵가족	3.07 (.90)	3.71 (.92)	3.44 (.94)	4.10 (.75)	3.21 (.87)
고등학생	대가족	2.35 (.72)	3.57 (.92)	2.93 (.90)	3.76 (.94)	2.75 (.94)
	핵가족	2.72 (.87)	3.35 (.94)	3.21 (.83)	3.68 (.84)	2.92 (.81)
대학생	대가족	2.76 (.68)	3.57 (.86)	3.78 (.66)	4.22 (.78)	3.73 (.71)
	핵가족	2.87 (.75)	3.58 (.96)	3.58 (.77)	3.73 (.73)	3.63 (.66)
성인	대가족	2.88 (.97)	3.46 (.97)	2.91 (.81)	3.74 (.67)	3.63 (.66)
	핵가족	2.96 (.85)	3.34 (.85)	3.19 (.76)	3.81 (.72)	3.62 (.72)
노인	대가족	3.36 (.92)	3.38 (1.43)	3.98 (.89)	4.51 (.69)	4.05 (.76)
	핵가족	3.19 (.97)	3.47 (1.26)	3.83 (.82)	4.40 (.66)	3.91 (.77)
계	대가족	3.01 (.94)	3.48 (1.08)	3.44 (.91)	4.06 (.80)	3.64 (.79)
	핵가족	2.95 (.86)	3.44 (.95)	3.35 (.83)	3.88 (.77)	3.50 (.80)
F(4, 1011)	연령집단	9.14***	2.90*	26.82***	18.54***	25.92***
F(1, 1011)	가족유형	.10	.22	.00	2.46	.40
F(4, 1011)	상호작용	1.43	.63	2.51*	2.49*	.73

표 6에는 연령집단과 가족유형에 따른 만족도 점수를 제시하였다. 연령집단의 주효과는 영역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모두에서 유의미하였으나, 가족유형의 주효과는 어떤 경우에도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물질영역과 사회영역의 만족도에서 연령과 가족유형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성인은 대가족일 때보다는 핵가족일 때 물질적으로 더 만족하고 있었으나, $t(460)=-2.66$,

$p<.01$, 다른 연령집단은 가족유형에 따라 물질만족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t_s \leq 1.28$, $p>.10$. 또 대학생은 핵가족일 때보다 대가족일 때 사회영역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172)=3.16$, $p<.01$, 나머지 연령집단은 두 가족유형 간 사회영역 만족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t_s < 1$.

표 7에는 중·고·대학생의 학교성적에 따른 만족도 점수를 제시하였다. 세 집단 간 만족도 점수의 차이는 전부 유의미하였다(단, 신체만족도의 경우 $p=.056$). 중학생과 대학생에 견주어볼 때 고등학생이 일관성있게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성적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 만족도와 생산영역 만족도에서만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우, 미(A, B, C 학점)를 받은 학생이 양/가(D/F)를 받은 학생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았다. 생산만족도의 경우에는 수와 우를 받은 학생이 미를 받는 학생보다, 그리고 미를 받는 학생이 양/가를 받는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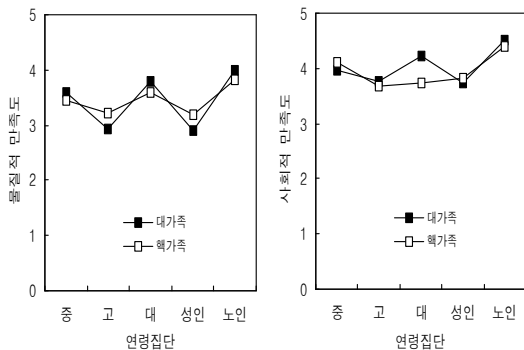


그림 2. 물질영역과 사회영역에서 가족유형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표 7. 중·고·대학생의 학교성적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평균(표준편차)과 다변량분석 결과

		전반적	신체	물질	사회	생산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중학생	수	3.10 (.91)	3.84 (.89)	3.38 (.80)	4.23 (.62)	3.40 (.81)
	우	2.76 (.86)	3.35 (.96)	3.26 (.82)	3.78 (.11)	3.00 (.79)
	미	3.27 (.80)	3.77 (.84)	3.53 (.89)	4.06 (.77)	3.12 (.82)
	양/가	2.47 (1.06)	3.43 (.94)	3.36 (1.19)	3.85 (.84)	2.79 (.85)
고등학생	수	2.73 (.97)	3.39 (.72)	3.38 (.83)	3.87 (.75)	3.17 (1.03)
	우	3.23 (.89)	3.60 (.94)	3.50 (.82)	4.09 (.82)	3.43 (.75)
	미	2.58 (.71)	3.38 (.98)	3.06 (.83)	3.57 (.14)	2.84 (.72)
	양/가	2.46 (1.09)	3.43 (1.05)	2.86 (.94)	3.36 (.21)	2.27 (.71)
대학생	수	3.12 (.75)	3.68 (.97)	3.75 (.70)	3.85 (.85)	3.96 (.67)
	우	2.83 (.75)	3.57 (.96)	3.55 (.75)	3.80 (.72)	3.65 (.60)
	미	2.77 (.64)	3.60 (.76)	3.73 (.72)	3.88 (.75)	3.33 (.74)
	양/가	2.16 (.50)	2.90 (1.39)	3.00 (1.12)	3.60 (.98)	3.05 (.62)
계	수	3.03 (.86)a	3.67 (.90)	3.53 (.78)	3.99 (.76)	3.58 (.87)a
	우	2.88 (.82)a	3.51 (.96)	3.46 (.79)	3.85 (.79)	3.42 (.74)a
	미	2.93 (.79)a	3.61 (.88)	3.43 (.87)	3.86 (.82)	3.08 (.79)b
	양/가	2.43 (1.00)b	3.36 (1.03)	3.12 (1.09)	3.64 (.85)	2.63 (.81)c
F(2, 435)	연령집단	6.97**	2.97†	4.61**	7.03**	15.57***
F(3, 435)	성적	3.99**	1.06	1.82	1.81	10.49***
F(6, 435)	상호작용	1.25	.47	1.08	.34	.71

† $p = .052$

표 8. 성인과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차이

		전반적	신체	물질	사회	생산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성인	초졸	3.08 (.87)a	3.24 (1.15)	3.16 (.73)	3.82 (.69)	3.58 (.76)
	중졸	2.60 (.75)b	3.21 (.98)	2.73 (.68)	3.61 (.78)	3.46 (.73)
	고졸	2.85 (.87)ab	3.37 (.81)	3.09 (.80)	3.78 (.72)	3.58 (.74)
	대졸이상	3.18 (.82)a	3.38 (.88)	3.35 (.69)	3.88 (.68)	3.73 (.63)
노인	초졸	3.09 (1.00)	2.89 (1.44)a	3.90 (.79)	4.51 (.62)	3.94 (.73)
	중졸	3.50 (.95)	3.68 (1.25)b	4.06 (.77)	4.47 (.75)	4.25 (.71)
	고졸	3.45 (.78)	4.15 (1.15)b	4.01 (.79)	4.42 (.63)	3.98 (.75)
	대졸이상	3.60 (.82)	3.89 (.83)b	4.08 (.63)	4.12 (.80)	3.83 (.69)
계	초졸	3.08 (.96)	2.98 (1.37)a	3.70 (.84)a	4.35 (.70)	3.85 (.75)
	중졸	2.84 (.89)	3.34 (1.07)ab	3.09 (.91)c	3.84 (.86)	3.67 (.80)
	고졸	2.91 (.88)	3.44 (.87)b	3.17 (.84)c	3.84 (.74)	3.62 (.75)
	대졸이상	3.22 (.82)	3.44 (.88)b	3.43 (.72)b	3.91 (.70)	3.74 (.64)
	성인	2.95 (.86)	3.35 (.96)	3.15 (.77)	3.80 (.72)	3.62 (.71)
	노인	3.32 (.93)	3.47 (1.36)	3.98 (.76)	4.42 (.68)	3.98 (.73)
F(1, 539)	연령집단	14.48***	6.74*	81.47***	41.00***	14.98***
F(3, 539)	교육수준	1.73	4.02**	2.40†	.90	.05
F(3, 539)	상호작용	2.67*	4.79**	1.39	1.89	1.95

† $p =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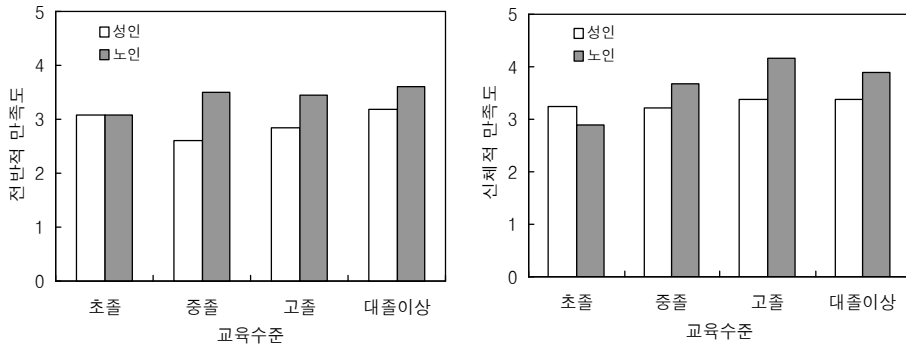


그림 3. 전반적 만족도와 신체영역 만족도에서 교육수준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나타났다. 연령집단과 성적의 상호작용은 어느 경우에도 의미가 없었다.

표 8에는 성인과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점수를 제시하였다. 연령집단의 주효과는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노인이 성인보다 삶 전반에 대해, 그리고 삶의 각 영역에서 더 만족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의 주효과는 신체영역 만족도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고졸과 대졸 이상이 초졸보다 신체만족도가 더 높았다. 신체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와 더불어 연령집단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교육수준이 중졸, 고졸, 대졸인 경우에는 노인이 성인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t(59)=-3.82, p<.001, t(260)=-3.21, p<.01, t(178)=-2.01, p<.05$, 교육수준이 초졸인 경우에는 성인과 노인 간에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신체만족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즉 고졸과 대졸인 경우에는 노인이 성인보다 자신의 신체건강 상태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261)=-4.28, p<.001, t(179)=-2.43, p<.05$, 초졸과 중졸인 경우에는 성인과 노인 간에 신체만족도에 차이

가 없었다.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관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9에는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반적 만족도는 4개 영역 만족도 전부와 의미있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전반적 만족도는 특히 생산 및 물질 영역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사회영역의 만족도와도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4개 영역만족도 상호간에도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신체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상호간에 특히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 및 다

표 9.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상관분석 결과

	전반적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생산	사회	물질
생산	.52**			
사회	.42**	.51**		
물질	.56**	.54**	.47**	
신체	.31**	.30**	.30**	.33**

표 10.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		R^2	2단계		R^2	3단계		R^2
중	물질	.359	생산	.446	사회	.468		
고	물질	.351	생산	.446				
대	생산	.266	물질	.305				
성인	물질	.345	생산	.418				
노인	물질	.310	신체	.350				

른 세 영역의 만족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령집단별로도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으나 전체집단의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각 영역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인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에 이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집단의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물질영역과 생산영역의 만족도를 주로 반영했으며, 사회영역과 신체영역의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었다. 연령집단별 분석을 보면, 중학생, 대학생, 성인의 경우 물질영역과 생산영역의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물질영역과 생산영역의 만족도 외에 사회영역의 만족도도 영향력이 있었고, 노인의 경우에는 물질영역과 신체영역의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영역 중에서 물질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표 4), 이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전반적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에 이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반적 만족도의 결과를 보면, 중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네 연령집단이 모두 경제수준의 β 계수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인과 노인의 경우 β 계수가 .30 이상으로서 상당히 설명변량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이 전반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해준다. 이 결과는 또 물질영역의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경제수준 이외의 변인들이 각 연령집단의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여중생이 남중생보다, 고등학생은 부교육수준이 높고 모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학생은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만족하고 있었다.

신체만족도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 만족도의 결과와는 달리 고등학생과 성인만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수준의 β 계수도 .20에 못 미치는 낮은 수치로, 경제수준이 신체만족도에는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신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신체만족도에 특별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없었다. 대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노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반적		신체		물질		사회		생산	
		R ²	β	R ²	β	R ²	β	R ²	β	R ²	β
중학생	경제수준		.11		-.00		.30***		.05		.13
	성별		-.25**		.12		-.13		-.09		-.21*
	가족유형	.35	-.09	.20	.05	.37	-.03	.21	.09	.40	.01
	부교육수준		.02		.12		.07		.09		.17
	모교육수준		.09		-.10		.06		-.02		-.00
	성적		-.12		-.08		.06		-.13		-.20*
고등학생	경제수준		.27**		.20*		.21*		.16		.17*
	성별		.03		-.07		-.03		-.02		.02
	가족유형	.38	.11	.24	-.07	.36	.05	.27	-.05	.41	.02
	부교육수준		.31*		.02		.28*		.17		.38**
	모교육수준		-.29*		-.13		-.15		-.16		-.25*
	성적		-.02		.02		-.08		-.14		-.16
대학생	경제수준		.23**		.04		.25**		.20*		.16*
	성별		-.09		-.21*		-.19*		-.02		-.05
	가족유형	.42	.03	.23	-.01	.34	-.12	.33	-.26**	.37	-.06
	부교육수준		.07		.01		-.15		-.16		-.04
	모교육수준		.17		.13		.11		.12		.05
	성적		-.18*		-.11		-.13		-.02		-.33***
성인	경제수준		.34***		.16**		.39***		.09		.18***
	성별	.13	-.00	.03	-.02	.18	-.05	.03	.12**	.04	-.00
	가족유형		.05		-.04		.15**		.04		.01
	교육수준		.05		.00		.06		.07		.05
노인	경제수준		.35***		.12		.24*		.20*		.13
	성별	.20	.10	.15	-.08	.16	.26*	.16	.30**	.06	.11
	가족유형		-.12		.04		-.13		-.07		-.16
	교육수준		.23*		.30**		.19 [†]		-.07		.00
전체	경제수준		.32***		.15**		.32***		.14***		.15***
	성별	.11	-.03	.03	-.06*	.11	-.08*	.03	.06*	.03	-.03
	가족유형		-.03		-.02		-.04		-.09**		-.07*

물질만족도의 결과를 보면, 모든 연령집단에서 경제수준이 물질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인의 경우 경제수준의 β 계수가 .39로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밖에도 고등학생은 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인은 핵가족일 때가 대가족일 때보다, 노인은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물질 면에서 더 만족하고 있었다.

사회만족도의 결과를 보면, 중고생의 경우 특히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었으나, 대학생과 노인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인과 노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생은 핵가족일 때보다 대가족일 때 사회만족도가 더 높았다.

생산만족도의 결과를 보면, 중학생과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연령집단에서 경제수준의 β 계수가 유의미하였다. 즉 경제수준이 높

을수록 생산만족도가 더 높았다. 경제수준 이외에 생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중·고·대학생들은 모두 성적이 높을수록 생산영역에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생은 남자가 여자보다 생산만족도가 더 높았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1) 연령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변화 양상, (2) 연령 이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경제수준, 가족유형, 성적, 교육수준)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3)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관계 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변화 양상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노인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중·고·대학생과 성인보다는 노인이 삶에 대해 더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예, 김의철 등, 2000). 노인은 사회적 은퇴와 이로 인한 소득감소, 신체건강 쇠퇴 등 삶에 대한 만족감이 저하될 요인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는 삶에 대한 만족이 그러한 객관적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은 다른 집단과는 달리 개별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면접 방식이 노인들로 하여금 더 바람직한 쪽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 비해 삶의 객관적인 조건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시설거주자들도 일반인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선행연구의 결과(성기월, 1999; 정명숙, 2000, 2004)는 전자의 설명을 강력히 지지한다.

다섯 연령집단 중에서 고등학생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고등학교 때 ‘입시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 다음으로는 성인의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물질영역과 신체영역의 만족도는 성인도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4, 50대의 성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짐작된다. 성인들의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도 일상에서 낙오하고 좌절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건강에 문제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우리나라 사회의 주관적 안녕감을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과(정태연, 한광희, 2001)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만족도와 비교해볼 때 영역별 만족도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전반적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은 4개 영역 모두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노인은 물질, 사회, 생산 영역에서 다른 어느 연령집단보다도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신체영역에서만은 노인의 만족도가 고등학생이나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다. 노인의 신체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영역의 만족도와는 대조적으로 이렇듯 낮은

것은 노화로 인한 각종 신체기능의 감퇴가 그 원인일 것으로 풀이된다.

노인은 물질이나 생산성, 사회적 관계의 범위 등에서 젊은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물질, 사회, 생산 영역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는 객관적 조건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종래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예, Brief, Butcher, George, & Link, 1993; Costa, McCrae, & Norris, 1981). 가령 Costa 등(1981)은 행복한 사람은 삶의 기쁨을 기쁨으로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객관적 의미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많이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서론부분에서 보았듯이(표 1), 각기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연령집단의 만족도를 측정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에는 연령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령집단의 만족도를 단일척도에 의해 측정한 결과, 연령집단 간에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에 차이가 있음을 밝힐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연령 이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연령 이외에 성별, 경제수준, 가족유형, 학교성적, 교육수준의 다섯 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는 경제수준만이 유일하게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또 중·고·대학생, 성인, 노인의 구별 없이 모든 연령에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삶에 대한 만족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학교성적은 중·고·대학생의 전반적 만족도와 생산영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대학생의 경우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생산영역에서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성적은 학생들의 신체영역, 물질영역, 그리고 사회영역의 만족도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수준과 성적은 연령에 따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은 데 반해, 성별, 가족유형, 교육수준은 일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연령에 따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호작용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먼저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보면, 사회영역과 생산영역의 만족도에서 연령에 따라 성별차이가 달리 나타났다. 즉 중·고·대학생과 성인은 이들 영역에서 남녀간에 만족도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남자의 만족도가 약간 더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노년기에는 여자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들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영역과 생산영역에서 만족도가 더 급격히

증가하였다. 여자들의 경우 자녀를 출가시키고 집안 살림에도 예전만큼 업무이지 않게 되면서 자원봉사, 노인대학, 친구들과의 계 모임 등 사회활동의 반경을 넓혀나가는 것이 특히 사회영역과 생산영역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자도 여자만큼은 증가폭이 크지 않지만 젊은 시절에 비해 이 두 영역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질영역에서도 사회영역이나 생산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기까지는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노년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물질적으로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나이 들면서 실제로 물질 면에서 남자들보다 더 풍족해진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없으므로, 이 결과도 객관적 근거가 아닌 주관적 판단에 따라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에, 신체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나이가 들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나, 노년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문제를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남자의 경우에는 신체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연령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식과 남편의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고 자신의 건강관리는 소홀히 한 데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런 결과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나, 전반적 만족도는 어느 연령에서도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

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김의철 등(2000)은 여자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걸쳐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큰 변화가 없는 데 반해, 남자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면서 전반적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현재로서는 이 두 연구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불분명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성별차이가 달리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의철 등(2000)과 본 연구에서 각각 보고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은 각기 다른 종류의 만족도와 관련해 얻어졌다는 것 외에도, 얼핏 보기에 그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여자의 만족도가 남자의 만족도보다 더 크게 증가했으나, 김의철 등에서는 여자의 만족도는 연령에 따른 변화가 없었고 남자의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이가 들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삶에 대해 더 만족을 느낀다는 패턴은 두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족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모두 대가족이나 핵가족이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가족유형은 물질영역과 사회영역 만족도의 경우 연령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났다.

우선 성인은 대가족일 때보다는 핵가족일 때 물질영역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그 밖의 다른 연령집단들은 가족유형에 따라 물질영역의 만족수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성인의 경우 핵가족이 대가족보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더 적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성인 이외의 연령집단은 가족부양과 관련한 직접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가족형태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또한 가족유형은 대학생 이외 어떤 연령집단의 사회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대학생만은 핵가족보다는 대가족에서 생활할 때 사회영역에서 더 크게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대학생들은 사회적 관계가 훨씬 다양해지고 양적으로도 팽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삼 가족간 관계의 긍정적인 의미에 눈뜨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3) 교육수준과 연령의 상호작용

전반적 만족도와 신체영역 만족도에서 교육수준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최종학력이 초졸인 성인과 노인 간에는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고졸과 대졸) 경우에는 노인이 성인보다 자신의 삶 전반과 신체건강에 대해 더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인의 만족도는 교육수준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반면에, 노인은 교육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성인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앞서 지적한 대로, 가족부양을 위한 재정적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이 낮을 뿐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문제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전반적 만족도와 신체영역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노인은 부양책임에서 일단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아마도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은퇴 후에

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노년기까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만족도의 관계

어느 연령에서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는 물질영역과 생산영역의 만족도가 주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영역과 신체영역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물질영역의 만족도는 영역별 만족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그런데 이 영역의 만족도가 다른 영역의 만족도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사실은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물질영역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경제수준이 전반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은 중·고·대학생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경제수준과 물질에 대한 만족으로부터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가 IMF 이후 가장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작금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특수한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나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인지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문항 수가 적은 일부 변인들은 신뢰도가 낮았으며 따라서 이 부분의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측정변인의 문항 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도를 높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고대학생, 그리고 성인과 노인의 다섯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약 60년의 기간 동안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각 연령집단의 영역별 만족도의 프로파일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흔히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연령집단으로 분류되곤 하는 중고대학생의 경우 이 세 집단이 연령이 비교적 밀집해 있는 데다 모두 학생이라는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수준이 여러 모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고보선(2003). 제주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1), 1-12.
- 고보선(2004). 제주노인의 사회적 지지 유형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2), 145-162.
- 곽금주(1995). KLSSA 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 5-16.
-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경신, 김정란(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 및 위기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40), 105-120.
- 김기태, 박봉길(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 지역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153-168.
- 김남진(1999). 규칙적인 운동 참여 여부와 그 정도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9(3), 51-64.
- 김미옥(2003). 장애노인의 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1, 73-97.
- 김영범, 박준식(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169-185.
- 김영진, 김완석, 나은영, 이선이, 이종한, 조성을(1998). *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III*.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완석, 김영진(1997). 주관적 안녕 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 61-81.
- 김의철, 박영신, 곽금주(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 79-101.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 119-145.
- 김정석, 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김혜숙, 김영진, 김완석, 나은영, 이종한, 조성을, 최진호(1997). 한국인의 공동생활 및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통합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83-96.
- 박광희, 한혜정(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11, 43-61.
- 박은숙, 김순자, 김소인, 전영자, 이평숙, 김행자, 한금선(1998). 노인의 삶의 질 예측모형 구축-건강관리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3), 37-61.
- 박장근, 임란희, 김종도(2002). 노인복지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 585-598.
- 성기월(1999).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일상생활활

- 동(ADL)정도와 생활만족 정도의 비교. *한국노년학*, 19(1), 105-117.
- 신경림, 양진향(2003). 농촌 중년여성의 삶의 질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3(7), 999-1007.
- 유성호(1997). 자녀수와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후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결혼 상태에 따른 분석. *한국노년학*, 17(2), 37-50.
- 유희정(1987). 노인의 성격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외-내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임상심리학회지*, 6, 1-8.
- 윤경아, 이윤화, 이익섭(2000). 장애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77-91.
- 이익섭, 윤경아(2001). 가족의 지지가 장애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5, 315-340.
- 이인정(1999).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건강, 삶의 만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3), 35-50.
- 이인혜(1997). 성격, 유쾌한 및 불쾌한 생활경험,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NEO 성격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209-219.
- 이형석, 김도관, 고희정, 구형모, 권의정, 김지혜(2003). 노인 삶의 질 척도(Geriatric Quality of Life scale)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59-881.
- 이형실(2003). 농촌노인의 세대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4), 57-69.
- 임주영, 전귀연(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배우자 유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71-87.
- 임효영, 김경신(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 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89-203.
- 전귀연, 임주영(2002). 노인의 애착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3), 173-191.
- 정명숙(2000). 꽃동네 입소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연구. *꽃동네 연구 용역 보고서*(pp. 126-161).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정명숙(2004).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시설거주 노인과 일반가정 노인의 비교. *한국발달심리학회 2004 추계 심포지엄 발표논문집*(pp. 33-62). 한국발달심리학회.
- 정태연(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1-19.
- 정태연, 한광희(2001). 20대가 지각한 청소년과 성인과의 세대차이. *한국노년학*, 21(1), 1-14.
- 정혜정, 김태현, 이동숙(2000).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2), 49-70.
- 조명한, 김정오(1993). 정보화와 삶의 질: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5, 3-31.
-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 61-94.
- 최정신(1999). 농촌노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121-139.
- 한성열(1995). 삶의 질과 내재적 동기의 실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95-111.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Developing measures of perceived life quality: Results from several national survey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 1-26.
-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 Link, K. E. (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4, 646-653.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Sage.
- Costa, P. Y., McCrae, R. R., & Norris, A. H. (1981).

- Personal adjustment to aging: Longitudinal prediction from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Journal of Gerontology, 36*, 78-85.
- Cowen, E. L. (1991). In pursuit of wellness. *American Psychologist, 45*, 404-408.
- Diener, E. (198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1.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1차 원고 접수 : 2005. 7. 13

수정 원고 접수 : 2005. 8. 21

최종게재결정 : 2005. 8. 22

Ag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life

Myung-Sook Chung

Kkottongnae Hyundo University of Social Welfa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s across age groups in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life. A total of 1,067 participants (145 middle school students, 135 highschool students, 184 university students, 465 adults, and 138 older adults) took part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two scale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eveloped by Diener et al.(1984) to assess their overall life satisfaction, and a scale to assess their satisfaction in each of four domains of life. Physical, material, social, and productive domains of life were extracted from factor analyses.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verall satisfaction with life was the highest for the older adults and the lowest for the highschool students. A similar pattern of the results was obtained for satisfaction in material, social, and productive domains of life, whereas not the older adults but the middle and university students were found to be the most satisfied in the physical domain. Second, among all the demographic variables examined, socioeconomic statu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four domains of life as well as overall satisfaction with life. Third, the age variable was found to interact with several other demographic variables: They were gender by age interaction in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and productivity; education level by age interaction in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physical health; and family type by age interaction in materia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Finally, for the younger as well as the older people, satisfaction in material and productive domains had great influences on their overall satisfaction with life, whereas satisfaction in physical and social domains had relatively little effect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Keywords: satisfaction with life, happiness, quality of life, domains of life